

**【자료소개】**

---

---

# 1895년 전후 동래의 행정 문서들과 그 특성

이 훈 상 / 동아대학교 사학과

---

---

## 目 次

- |                                      |   |
|--------------------------------------|---|
| I. 들어가기                              | IV. 동래관찰부의 행정 문서와 무임<br>관련 자료들의 주제별 분류와<br>그 구성 |
| II. 구한말 동래관찰부 고문서<br>자료들의 항방과 전승     | V. 자료의 활용 방안과 구도                                |
| III. 새로 확인된 동래관찰부 고문서<br>자료들의 특성과 가치 |   |

## I. 들어가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894년의 갑오경장에 이르러 지방제도가 크게 바뀌었다. 조선 초기 이래의 8도제를 폐지하고, 새로이 23부제(府制)를 공포한 것이다. 이와 함께 종래 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 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지방행정구역을 총 337개의 군으로 단일화하고, 이를 23부(府) 아래에 분속시켰다. 그렇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제도를 바꾸었다. 급격한 개혁에 이어 다시 이것을 곧 뒤바꾸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이 무렵에 반복되었다. 지방사회를 근대국가의 주형에 맞추는 프로젝트는 이렇듯 연속된 혼란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여기에 소개하는 고문서 자료들은 바로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들로서 그 대부분은 근대 프로젝트의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전국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1863년에 이미 만들어진 지방 관청의 사례를 바로 1895년에 다시 만든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들 일련의 사례 편찬과 관련하여 양자는 30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사하지만 1863년의 것이 대규모의 농민 봉기를 겪은 후 지방의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이를 통제하려는 목적 아래 만들어진 것이라면, 1895년의 것은 근대 프로젝트의 수행에 요구되는 자원 확보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가 만들어진 배경이 다르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각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은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 동래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다만 동래의 경우 수영이나 부산진 등 각종 군사 기지가 문을 닫았고, 이것은 여기에 배속된 적지 않은 무임이나 이서 등의 생업이 힘들어진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각 군진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던 사회 질서와 인적 연망의 해체를 초래하는 등 적어도 외면적인 변화는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의 다양한 층위의 엘리트 집단들에게까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면에서 갑오경장 이후 각 지역사회에서 근대 국가의 건설을 위한 대규모 조사 작업을 새롭게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점에서 갑오경장 직후 경장의 실제 내용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조사-연구하여 정리한 일련의 문서들은 바로 이러한 기대에 부합하는 것들로서 지역사회의 변동에 대한 연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값진 공문서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변동기를 지역사회의 시점에서 본다고 할 때 국가와 사회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전자는 경장 자체의 성격과 이것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진 양상

이며, 또 하나는 이 같은 변화가 지역사회의 구조 등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특히 갑오경장은 중요하다고 믿어지는 데 이러한 면에서 이 시기의 관청 공문서 등은 지역사회에서 경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었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논의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듯 지역사회가 근대 변동기에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단순히 특정 지역을 절편으로 잘라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전근대 한국사회의 특성과 관련하여 각별히 인접 지역과의 연망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인접 지역에 대한 조사 연구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동래의 경우 기장과 양산이 특히 그 대상이 되는데 동래 지역의 연구를 위해서는 이들 두 지역에 대하여도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 아래 필자는 기장 지역에 대하여도 오랫동안 조사하여 왔다. 현재는 부산광역시에 편입된 기장과 동래 사이의 연망은 매우 중요하며 오랫동안 이 지역에 대한 조사-연구과정에서 적지 않은 고문서 등을 찾아냈다.

그리하여 기장 지역의 고문서 등을 정리하여 출간하여 왔으며 그 후 계속해서 새로운 문서들을 찾아냈다. 그리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그 외에 동래 지역에서 새로 찾아낸 것들까지 포함하여 일단 다른 연구자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리할 예정이었다. 그렇지만 이들의 양이 방대했고 무엇보다 갑오경장 직후 동래부의 관청 공문서 등이 방대하게 확인됨으로써 이것들을 정리하여 공유하는 것이 더 시의성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일단 1895년 전후 일련의 고문서 등을 먼저 정리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시의성과 효용성의 측면에서 기장 일원에서 발굴했던 각종 고문서보다는 관청 고문서 등을 먼저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익

하다고 본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동래에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소중한 고문서나 서책 등이 전승되고 있다. 향청고왕록이나 방대한 분량의 무청선생안 등은 다른 지역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자료들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하여 무임들이 하나의 사회집단을 형성한 여러 지역의 모델로서 정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료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은 아직도 많이 모자란다. 이러한 점에서 여기에 정리-제시한 일련의 관청 고문서 등은 여전히 많은 축적이 요구되는 이 같은 연구 논제의 확장과 심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 II. 구한말 동래관찰부 고문서 자료들의 향방과 전승

일제의 한국 병합 이전 동래부의 각종 자료들 가운데 각별히 구한말의 관청 자료들은 그 향방을 잘 알 수 없었다. 통상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구한말 지방제도가 여러 차례 변화하고 이어 일제가 한국을 병합하면서 관청의 각종 자료는 산일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뿐이었다. 이것은 대부분의 지역이 그러했으므로 동래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았다.

다만 조선시대 호적대장의 경우 구한말에 신호적으로 제도를 바꾸면서 중앙에서 이것을 수습하였고 그 덕분에 그 대부분이 현재까지 보전된 보기 드문 사례가 있다. 그렇지만 동래의 경우 중앙으로 보낼 경우 모두 도배지 등으로 쓸 것이라는 우려에서 이러한 지시를 거부하고 호적대장을 불태워버렸다. 따라서 적지 않은 경남 지역들의 조선후기의 호적대장이 보전된 것과는 달리 동래 지역의 것은 전승되지 못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1895년 전후의

동래부 관청의 각종 공문서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오래 전에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동래 지역 공공문서 등이 소장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문서 전체에 접근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도서 목록 등에서는 고문서의 제명만 확인할 수 있어 제명에 수영이나 부산진 등 지명이 들어간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어느 것이 동래 지역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고려대학교에는 동학 관련 자료들이 적지 않게 소장되어 있어 다른 연구자들도 이미 관심을 가졌지만, 고려대학교 소장 고문서에 바깥 연구자들이 접근하기란 쉽지 않았다. 실제로 동래부의 것 중 오래 전에 확인된 일부 문서들조차 활용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언제 공개할지 모른 채 오랫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소장한 고문서 등을 탈초하여 1997년부터 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다음이 그것이다.

『古文書 I: 官文書 1』, 서울 : 高麗大學校出版部, 1997.7, p. 674,

『古文書 II: 官文書 2』, 1999.8, p. 933.

원래 계획은 모두 다섯 책으로 출간하기로 했으나 1999년까지 두 책을 내놓았을 뿐이다. 이 책의 서문에는 나머지 세 책 중 두 책은 간찰을 나머지 한 책은 기타 문서로서 내놓을 예정이라고 했다. 따라서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동래부 관청의 고문서는 일단 그 전모를 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책 중에서도 처음 출간한 고문서집성에 거의 모든 고문서 내지는 고문서성책이 수록되어 있고 단지 한 점만이 두 번째 출간한 책에 수록되어 있다.

아쉬운 사실은 출간한 고문서집성을 널리 배포하지 않은 까닭에 필자는 물론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출간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부산 지역의 경우 필자는 아직도 이 책들이 소장된 도서관을 한군데도 찾지 못했으며, 우연한 기회에 이들 고문서집성이 출간된 사실을 너무도 늦게 알게 되었다. 미리 알았다더라면 동래 지역을 사례로 한 적지 않은 연구들의 내용이 보다 풍요로워졌을 것이라 믿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동래 지역의 고문서 등은 제명만으로는 동래 지역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다른 관련 자료들과 하나하나 대조하고 비교하는 오랫동안의 작업을 거쳐서 동래 지역의 것을 찾아내야 했다. 여기에 제시한 고문서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집성한 것이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동래부 문서들은 나중에 상세하게 언급하겠지만 제작 시기나 성격으로 미루어 일괄 문서로서 한꺼번에 유출되어 전승되었다고 믿어진다. 이렇듯 특정 시기의 일괄 문서들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각별히 1897년에서 1910년 사이에 만들어진 일괄 공문서들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III. 새로 확인된 동래관찰부 고문서 자료들의 특성과 가치

이들 고문서들은 거의 대부분이 1895년 하반기의 자료들이다. 당시 동래는 지방제도가 개편되어 전국을 23부로 개편하면서 동래관찰부가 되었다. 그리하여 동래부사였던 지식영은 동래관찰사가 되었다. 지방제도의 개편에 이어 통제영과 수영, 병영 등이 폐지되었고 이 와중에 이들 군사 기지에 대한 뒤처리도 해야 했다. 더불어 조선왕조는 근대 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다양한 개혁을 서둘렀다. 동래에서 이것을 수행한 것이 바로 지식영이며, 이

문서들 대부분은 바로 이 무렵에 작성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문서들은 당시 근대 국가 건설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어떠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순검들을 선발하는 데 모두가 이서와 무임들에서 선발한 사실이 그것이다. 새로운 변동기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회가 모두 이 두 집단에 집중된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지방제도의 개편 과정에서 강화된 면제에서 각 면에서 면장을 맡은 부류들을 분석하면 당시 중군을 역임한 무임 출신이거나 장의 등 이미 각 지역에서 이미 상층에 진입했거나 여기에 근접한 부류들이라는 사실도 주목된다. 이것은 근대의 개혁에서 새로운 제도를 통한 기회가 국가 기구에서 종사했거나 연관되는 이들에게 집중되었음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순검 등에 선발된 이들이 모두 읍내와 그 인근에 거주하는 부류였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이것은 양반 중심의 읍치 바깥 사회와 관청 중심의 읍치 사회 사이의 형평 위에서 유지되던 조선 왕조사회가 이제 그 변화의 중심이 관청 중심의 읍치 사회로 이동하는 기반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 일련의 문서들은 바로 근대 도시 형성의 전 단계를 형성한 변화의 동인이 곧 조선왕조의 마지막 개혁과 연관됨을 알려주는 것이다. 일부 문서들의 분석에 불과하지만 이들 문서들의 가치는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이다.

특정 시기의 관부 문서들이 이렇듯 집중되어 나왔고 그것도 그 대부분이 갑오개혁과 더불어 근대 국가 건설이라는 의제가 지방사회에도 처음으로 구체화된 시기의 것이라는 점은 거듭 강조하여도 좋다. 나아가 이들 문서들의 또 다른 중요성은 특히 무임들과 이서들에 대하여 종래 활용되는 자료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들과 연관된 체계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의제의 설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미 밝

혀진 바와 같이 독진으로서 동래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의 하나가 바로 무임들이 하나의 사회 집단을 형성했던 사실일 것이다. 나아가 세습 경향도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 집단이 경제기반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된 자료는 매우 단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이제까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는 무임 집단의 중심이 되는 각 무청들의 경제적 기반과 그 운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들이 나왔다.

무임들이 배속된 각 무청과 상급 무임을 중심으로 이들 각각에 대한 대우를 규정한 자료들도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우선 각별히 대우를 받는 직책은 中軍, 行首軍官, 行首執事이며, 이어 執事 2인, 旗牌官 2인, 兵校 左右2인, 千摠, 把摠, 別騎衛 別將, 親衛 別將, 武士將, 巡城將, 軍器官 등 13명에게도 각기 料賴가 제공되고 있다. 다음은 각 무청의 군관들에 대한 대우인데 이들은 호포에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더불어 이것이 武校로 입사하는 길을 열어놓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동래부의 사례에는 단지 이들에 대한 요목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料賴의 기초가 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러한 면에서 이 자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한편 동래 각 무청과 무임의 각 직책이 무슨 책무를 수행하는지를 분명하게 정리하여 놓은 자료도 나왔다. 여기에는 중군을 포함하여 모두 24명의 직책이 나와 있다. 일단 이들을 상급 무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하급 무임들도 세습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일단 상급 무임들과는 위계 질서가 뚜렷했다. 무청과 무임 각 직책의 책무에 대한 이렇다 할 기록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유형의 자료는 이 지역의 중요 사회집단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지평을 제공할 것이라 믿는다.

#### IV. 동래관찰부의 행정 문서와 무임 관련 자료들의 주제별 분류와 그 구성

새로 확인된 동래관찰부의 자료들은 그 대부분이 1895년 후반부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들 문서들을 형태가 아닌 주제에 따라 분류-정리하는 것이 내용 전달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A. 동래부의 행정조직과 그 인적 구성
- B. 무임집단과 그 운영, 그리고 이들의 경제 기반
- C. 수영, 부산진, 다대진등 군사 기지의 폐쇄와 그 군비 등에 대한 조사 자료들
- D. 동래부의 결세, 민호, 그리고 인구 조사
- E. 동래부 관청의 종이 출급과 관리

먼저 1895년 행정 조직과 인적 구성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나온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동래부사로부터 지역 군사 사령관이라 할 중군, 이서 등 관속, 그리고 면장 등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특정 시기 행정을 끝어나가는 모든 직책자들을 모두 알 수 있어 변동기 동래부의 권력과 인적 연망의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더욱이 무임집단과 관련된 자료들고 나왔는데 이 중에서도 이들이 배속된 무청의 경제 기반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모두가 처음으로 밝혀진 것들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갑오경장에는 수영 등 군진의 폐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이들의 소장 비품 등을 조사하여야

했다. 오랫동안 여기에 적지 않은 지역민들이 배속되어 있었던 만큼 이것은 큰 충격이었다. 아직도 우리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 다만 이 조사 결과를 통하여 이들 각종 군진의 재정 현황이나 업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큰 다행이다.

네 번째로는 동래부의 결세와 민호, 인구 등의 조사표 등이다. 1895년과 1896년에 걸쳐 이루어진 結稅成冊(F5 - 322), 1895년 10월에 만들어진 民戶成冊(F5 - 342), 그리고 1896년 1월에 만들어진 東萊郡各面各里查戶實數成冊(F5 - 334)이 이들이다. 이 무렵 중앙정부는 각 지역의 결세, 민호, 인구 등을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동래에도 그 성과가 집약된 각종 자료 등이 남아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위의 세 자료는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들과 동일한 유형의 자료로서 단순히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담고 있는 정보 자체가 차이가 커서 보다 새로운 사실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다섯 번째로는 동래부에서 공용 종이의 출납과 관리 및 땀감 등의 출납을 문서로 정리한 고문서 성책이다. 당시 종이의 가치나 중요성이 크다는 사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관용 물품의 출납과 관리를 모두 책실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한데 이 때 책실은 바로 지식영이 데리고 온 인물일 것이다. 이 자료들은 이 같은 관행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여기에 수록한 모든 문서들을 주제별로 묶고 이어 문서 번호와 크기 그리고 수록된 지면을 명시하면 다음과 같다.

#### A. 동래부의 행정조직과 그 인적 구성

1. F5 - 548 先生案 미상 24×14cm (I-280)

2. F5 - 242 人吏點考關記 1895년10월1일 55X59cm (I-281~282)
3. F5 - 712 官屬定記 1895년10월1일경 20×53cm (I-510~511)
4. F5 - 307 各色差役記 1895년10월1일 30X63cm (I-508)
5. F5 - 653 各色差任記 1895년10월1일 18×63cm (I-508~509)
6. F5 - 654 各面色差任記 1895년8월경 23.5×64cm (I-507~508)
7. F5 - 946 承政院日記抄 1895년10월경 24.5×26cm (II-223)
8. F5 - 652 屯稅捧上色差任記 1895년10월1일경 19.5×12cm (I-511)
9. F5 - 351 面長及洞長姓名威冊 1895년8월경 20×20cm (I-278~280)

B. 무임집단과 그 운영, 그리고 이들의 경제 기반

10. F5 - 211 中軍秩名簿 1895년8월경 19.5×30cm (I- 283)
11. F5 - 644 望單子 1895년8월27일 18X19cm (I- 272)
12. F5 - 649 望單子 1895년8월27일 21X22cm (I- 272)
13. F5 - 244 將校舉行條件 1895년9월 21X58cm (I-476~477)
14. F5 - 243 吏中巡檢抄 1895년9월10일 20.5X54.5cm (I-281)
15. F5 - 245 將校中巡檢抄 1895년9월10일 20×48cm (I-282)
16. F5 - 320 武三廳職田 1895년9월경 24.5×68cm (I-397~398)
17. F5 - 353 武各廳田畝總計冊(6枚) 1895년8월 20.5X20.5cm (I-602~603)
18. F5 - 346 武各廳稅入用下區別冊(5張) 1895년9월 18X19cm (I-545~546)

C. 수영, 부산진, 다대진등 군사 기지의 폐쇄와 그 군비 등에 대한 조사 자료들

19. F5 - 214 錢穀什物查實監色抄 1895년8월4일 21.5X57cm (I-282)
20. F5 - 341 釜山鎮公養山立木株數冊(3枚) 1895년8월11일 20X20cm (I-611)
21. F5 - 343 釜山鎮文簿照數冊(7枚) 1895년8월16일 20X20cm (I-612)
22. F5 - 345 東萊水營官屯田稅租臺帳(9枚) 1895년8월경 21X20cm (I-418~420)

D. 동래부의 결세, 민호, 그리고 인구 조사

- 23. F5 - 322 結稅成冊 1895년말 21X20.5cm (I-98~102)
- 24. F5 - 342 民戶成冊(7枚) 1895년10월 20X20.5cm (I-333~336)
- 25. F5 - 334 東萊郡各面各里查戶實數成冊(4枚) 1896년1월 20×20cm (I-329~330)

E. 동래부 관청의 종이 출급과 관리

- 26. F5 - 626 知音 1895년8월 27×212cm (I-505~507)
- 27. F5 - 246 知音 1895년8월·9월 29×44cm(外 32件) (I-501~505)

## V. 자료의 활용 방안과 구도

아쉽게도 이들 문서들이 수합되어 전승된 경위를 잘 알 수 없다. 이것은 문서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지만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는 찾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일단 이들 문서들이 공식적인 행정 전달 체계를 거쳐 중앙으로 상송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지 아닌지는 문서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여야 하겠다.

그런데 이 같은 물음에 앞서 고려대학교에 소장된 고문서 등이 일괄 고문서라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거의 대부분이 1895년과 1896년 사이에 만들어졌으며 이 중 일부는 중앙에 보고할 목적 아래 조사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에 상송할 목적 아래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종이의 출납과 관리와 같은 회계 장부 등이 이 일괄 고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이것을 뒷받침한다. 요컨대 고려대학교에 소장된 고문서들은 특정 시기에 만들어진 일괄 고문서들이며 좀 더 추론이 허용된다면 단순히 관찰사 지석영 개인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것이

라기보다는 동래관찰사부가 동래부로 다시 바뀌는 변동의 와중에 관찰부에 보관된 문서들이 한꺼번에 유출된 것이라 믿어진다. 그 후 어떠한 과정을 밟아서 고려대학교 도서관으로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특정 시기의 소중한 자료들을 우리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행운이다.

원문의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 적지 않다. 언뜻 보아 납득가지 않은 일들이 있다. 동래부의 이서 명단이 승정원일기초에 올라 있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지방 이서들의 명단이 승정원일기에 수록된다는 것은 좀처럼 연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실제 원문과 모든 탈초 자료 등을 대조하고 검토하는 일련의 작업을 거쳐야 하며 이것은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원문과의 대조가 매우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공문서 자료들의 가치는 동래 지역 사회 연구와 관련하여 최근 발굴된 것들과는 비교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

결세나 민호, 인가와 관련된 것들이나 수영 등 군사 기지의 첩폐와 더불어 이들 소장의 물품을 조사한 기록 등은 기본적으로 중앙 정부에 상송할 목적 아래 이루어진 작업의 산물일 것이다. 다만 이들이 지방 관청에서 철저하게 중앙 정부를 의식하여 만들어진 자료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들 조사 및 집계 방식은 여전히 과거의 관행을 지표로 삼고 있는 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중앙의 시선에 맞추면서도 또 한편 지역 사회가 자신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절충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변동기의 조사 방식이 정말로 근대 국가의 지표에 부합하는 지에 대하여도 이들 문서들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 운영과 관련된 이 지역의 인간 집단과 그 구성 그리고 관행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이들 자료들이 보여준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들 일괄 문서의 또 다른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을 것 같다.

첨언 :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출간한 고문서집성에 수록된 고문서자료들은 텍스트파일로 제공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필자는 연구자들이 쉽게 활용하도록 수록된 고문서 자료들을 『항도부산』에 전재하기 위하여 모두를 한자로 치고 각 문서들에 대하여는 상세한 해설을 달았다. 그런데 그 분량이 430매에 이르러 게재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부득이 자료와 해설은 여기에 뺄 수밖에 없었다. 아쉽지만 재정리한 고문서 자료들과 이들 각각에 대한 해설은 다른 기회에 전재하여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양해를 구한다.